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금년 역시 소외된 이웃을 위한 27번째 거리성탄예배(14. 12. 25)가
밥퍼 앞마당과 이면도로에서 올려지게 됩니다.
벽찬 설레임으로 당신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후원회원 여러분!

설곡산을 붉게 물들인 단풍나무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붉게 타오르는 가을의 끝자락이기를 기도하며 사랑하는 벗님들과 친구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10월에 네팔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과 희망으로 흠바닥에서 시작했던 네팔 다일공동체가 '밥퍼'와 '빵퍼'에 이어 '꿈퍼'를 꿈꾸며 견고하고도 내실있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은 언제 봐도 벅찬 감동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구걸하며 살아가던 머느하르 빈민촌 아이들이 구걸이 없는 삶을 선언하고 책과 씨름하고 있는 모습도 눈물겨운 감동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받는 삶에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잔뜩 쌓여있는 결재서류 위에 익숙한 필체의 편지 한통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도 반가웠고 너무도 미안한 편지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노동하며 번 돈을 자신을 위해 한푼도 쓰지 않고 캄보디아 빈민촌 아이들의 수술비와 교육비로 보내주고 있는 S형제의 편지였습니다. S형제의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후원회원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후원금 한푼 한푼에 담겨있을 누군가의 절제, 누군가의 땀방울이,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소리없는 기도가 떠올라 한동안 울먹여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후원회원 여러분!

지금 이시간도 10개국 16개 분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일의 사역은 S형제와 같은 후원회원 여러분의 사랑 덕분임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섬김과 나눔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소식지에서도 말씀드렸던 "한분 후원회원이 한분의 새 후원회원을 연결하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이제까지 후원하신 분이 한 사람의 후원회원을 연결하는 이 일에 꼭 동참해 주셔서,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아름다운 나눔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4년 11월에,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작은 형제, 최일도 목사 올림



CONTENTS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편집위원 | 김도한, 이해진, Byeol Ellie Choi

사진 | 김도한

디자인, 인쇄 | 틀니 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발행일 | 2014년 11월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주소 |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 02 2212 8004

팩스 | 02 2243 8005

02	세계 어린이의 날 특집 Our Children, Our Hope
12	성탄이야기
18	우리 시대의 나눔 아이콘
20	밥퍼 저금통에 희망을 담다
22	나누고 싶은 편지
23	마음을 위로해 주는 시
24	다일공동체 영성생활수련을 통한 나의 변화
28	다일공동체 현장이야기
36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38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0	후원안내 및 분원연락처



11.20

세계어린이의 날 특집

세계어린이의 날

어린이들은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 나라의 미래이며 꿈입니다. 세계 모든 어린이가 진정 행복해지길
바라고 바랍니다. 세계의 어린이들이 피부의 색과 빈부의 차이와 상관없이
사랑 안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문득 5월 5일 이 무슨 날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한국 사람은 누구나 먼저 어린이 날 이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럼 11월 20일은 무슨 날 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대답 할 수 있는 분이 몇 명
이나 될까요? 3월 1일 삼일절, 8월 15일 광복절, 12월 25일 성탄절은 쉽게 알 수 있어도 11월 20일은 생소한
날이지요. 바로 이날은 UN에서 정한 '세계 어린이의 날'입니다. 이 날은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
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장난감, 옷 등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주체적인 인격체로서
존엄성이 있고 모두가 동등하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날이 바로 11월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에 생계를 위해 어른들도 하기 힘
든 노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아동노동 인구가 1억 명을 넘었고 여자아이들과 고
아들의 대부분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6. 25 이후 전쟁의 고아들과 교육받지 못한 한국의 어린이
들이 세계의 많은 도움으로 다시 일어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앞장서서 세계의 어린이들을 도
와 줄 때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 나라의 미래이며 꿈입니다. 세계 모든 어린이가 진정 행복해지길 바라
고 바랍니다. 세계의 어린이들이 피부의 색과 빈부의 차이와 상관없이 사랑 안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고민으로 세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다일공동체는 세계 여러 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꿈나무로 자라는 아이들

먼저 중국 다일공동체 훈춘 어린이집은 1999년 6월, 중국 길림성 훈춘시 밀강에 삶의 자리를 정하고 해외의 첫 번째 다일공동체 분원으로 개원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하는 아이들에게 생명키트(쌀과 기초물품 주머니)를 강 주변에 놓아두는 생명 바구니 사역을 위하여 훈춘시 밀강에 자리를 잡은 중국 다일공동체는 이것을 인연으로 훈춘어린이집을 밀강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골학교 축소 및 아이들의 성장으로 인해 더 나은 조선족, 한족 고아들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2004년 7월, 훈춘 시내로 이전하였고, 중국은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이 전혀 허락되지 않아 오로지 사랑과 정성으로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훈춘어린이집 아이들이 중국 사회를 섬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만 15년이 지난 지금 거의 모든 국제NGO를 추방하는 중국 정부임에도 중국 다일공동체만은 계속 남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중국 다일공동체는 앞으로도 계속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제대로 감당하는 해외분원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조선족과 한족 어린이들 가운데 부모를 잃거나 장애로 인해 버림받은 아이들, 심지어는 날자마자 버려진 아이들이 훈춘 어린이집으로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갖고 훈춘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픔을 씻어주시고 만지시어 이 아이들이 아시아의 꿈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니 일체, 은혜, 감사뿐입니다.

구걸이 아닌 혁명의 삶

네팔 다일공동체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거리의 아이들을 위해 2010년부터 3년 동안 오전에 1시간 정도 가장 <Hope Class>를 운영했고, 2013년부터는 코이카와 협력하여 대안학교인 <다일-코이카 Hope School>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초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일호프스쿨은 떠라이 지방 아이들, 인도의 이주민 아이들, 카트만두 빈민촌에서도 가장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대부분이 교육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구걸을 하면서 살아왔던 아이들입니다. 아무 힘도 희망도 없는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구걸밖에 없던 날을 보내던 아이들. 도심 한복판까지 걸어가 관광객들에게 구걸하는 삶이 일상이었던 이 아이들의 삶에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팔 다일공동체는 호프스쿨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에게 사는 환경이 어렵더라도 교복은 깨끗이 빨아서 입힐 것을 약속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학부모회를 열어 아이들의 교육상황을 나누고 자녀들이 구걸을 해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편입할 경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기 위해 다른 노동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매일 공부를 시키겠다는 서약을 아주 철저하게 받습니다. 다일-코이카 호프스쿨은 아이들이 구걸하지 않고 인간답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자립교육기관의 역할을 아주 독특히 해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자라는 수상유치원

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 씨엔립에 2009년 9월 개원한 다일수상유치원은 쯡크니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입니다. 오전/오후 2개의 반으로 나누어 100여명의 만 4~6세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 중 유치원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는 아이들. 다일수상유치원을 통해 캄보디아의 희망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한 번씩 학부모 회의를 진행하여 한 달 동안 유치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사진도 보고, 다음 달 이야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활동사진을 보면서 엄마들은 혹시나 자기 아이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으로 사진에 집중을 합니다. 엄마의 마음은 세계 어디나 모두 똑같나 봅니다. 그전에는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오게 하고 구걸하게 하던 엄마들도 이제는 교육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저분한 옷이 아닌 깨끗한 교복을 입히고 여자 아이들의 머리를 예쁘게 묶어 유치원으로 보내는 엄마들의 눈빛이 교육을 통해 바뀔 수 있음을 아이들도 어머니들도 깨닫고 불신이 희망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우기를 원하고 꿈을 가진 아이

필리핀 다일공동체에서는 까비떼 지역의 빈민들을 위해 밥퍼와 다일드림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일드림데이케어센터의 유치원 교육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일드림데이케어센터가 개원하기 전에는 양철지붕 밑에서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공부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안락하고 포근한 공간에서 꿈과 희망을 키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까지 걸어서 찾아온 까비떼의 엄마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다일유치원에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어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가르쳐주나요?”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도 밥을 주나요?”

예, 기독교 신자이든 다른 종교이든 상관없습니다. 필리핀 다일공동체는 배우기를 원하고 꿈을 가진 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센터 주변의 마을 주민들은 “다일공동체가 앞으로 우리 곁을 떠나지 말고 우리들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괴로움과 고통뿐이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필리핀 다일공동체의 아이들과 부모들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일호프스쿨을 위하여

탄자니아의 공교육은 무료입니다. 공교육이 무료이기에 누구나 학교에 갈 수 있지만 교육률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지만 교복, 가방, 학용품, 학교 기부금 등을 준비할 수 없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거나 중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탄자니아 초등학교 정규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다일호프클래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호프클래스의 아이들은 아동결연을 통해 정규 과정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과정에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사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살고 있는 집이 좁고 어두운 진흙 집인데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기에 집 밖의 맨바닥에 엎드려 공부합니다. 그렇게라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도 큼니다. 이러한 상황의 아이들이 마음편히 즐겁게 공부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방과 후 교실과 제 나이가 넘도록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탄자니아 다일호프스쿨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방과 후 교실과 탄자니아 다일호프스쿨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다일은 세계 빈곤국가의 어린이들을 위해 그 아이들이 한 인격체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노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할 손길을 기다립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걸음을 옮기도록 세계의 어린이들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ur Children, Our Hope

If you ask anyone you meet on the street what day May 5 is, all the Koreans would reply that it is the Children's Day without hesitation. However, how many people would be able to readily give the answer to what day November 20 is?

While people are very familiar with days such as March 1, August 15 and December 25, which are Independence Movement Day, National Liberation Day and Christmas, respectively, November 20 is a rather unfamiliar date. This is the "World Children's Day" designated by the UN.

The significance of this day is in promoting the importance and need to safeguard the fundamental rights of children throughout the world. November 20 was designated as the World Children's Day in order to promote and to have the fact that the dignity of children as independent personalities and the rights of the children to be enjoyed equally as any person must be respected be known widely, rather than as a day of presenting gifts such as toys and clothes to them.

Even now, there are so many children who are doing hard labor simply for the purpose of survival that is even arduous for adults although they should be in school for education. The population of children engaged in labor had already exceeded 100 million some 10 years ago with the majority of girls and orphans unable to attend school. Many



Written by **Lee, Ji Hyun**, Manager of Cooperative Ministry Department of the Dail Welfare Foundation

war orphans and uneducated children of Korea due to the Korean War were able to gain independence and become self-sufficient because of the extensive assistances provided from many countries in the world. It is now our turn to take the initiative and lead in assisting such impoverished children of the world. Children are our hopes, and the future and dream of our nation. We sincerely hope that all the children of the world are truly happy. What would be the means of assisting all the children of the world to grow properly with abundance of love regardless of their skin color and whether they are rich or poor? Dail Community is endeavoring to do whatever and all that we can to help children in various corners of the world.



Children who are the future dreams of Asia

Firstly, the Hunchun Dail Children's Center of Dail Community in Milgang Village in Hunchun City, Jilin Province, China held service for the opening of the Center as the first branch of Dail Community in overseas country in June 1999. Dail Community in China situated at Milgang Village in Hunchun City for the ministry of placing life baskets containing the livelihood kit (rice and basic items) along the riverbanks of the Duman River for the children crossing the River to escape from North Korea to China. Dail Children's Center was opened in Milgang in order to further this cause.



However, the Center was eventually moved to the urban center in the Hunchun City in July, 2004 due to the reduction in the schools in villages and growth of the children, and in order to provide a better educational environment for the Korean-Chinese children as well as Chinese orphans. As China is a socialistic country and religious activities are not permitted, we are taking care of the children with love and sincerity.

Dail Children's Center, as the results of the utmost efforts put in over the last 15 years with the aim of enabling children to grow into a competent people to serve the Chinese society, was reques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remain in China despite the government's policy in expelling almost all international NGOs over the years. Dail Community in China shall continue to be the overseas branch of Dail Community tasked with the provision of proper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orphans in China. Among the Korean-Chinese children as well as Chinese orphans, those who had lost parents or abandoned because of disabilities and even those abandoned as soon as they were born are continually coming to the Dail Children's Center in Hunchun for assistance. Although these children come to the Dail Children's Center with their individual painful stories, we are simply grateful, overflowed with grace for relieving of such pain and loving care in order for them to grow as the future dreams of Asia.

Life of revolution rather than mendicancy

Dail Community in Nepal has been operating the <Hope School> for about an hour in the morning over a period of 3 years since 2013 for the children on the street who were unable to attend school. It was merged into the <Dail-KOICA Hope School> established through cooperation with KOICA in 2013 as an alternative school. It has provided systematic elementary school education since then. The Dail Hope School has composed classes centered around the children with the most deteriorated living environments among those from the Terai district, children of the immigrants from India and the squatter settlement in Katmandu. The majority of these children lived their entire life by making living through begging with absolutely no educational benefit. These are children who were only able to beg all day in the life without any hope for the future or capabilities to do something. A revolution occurred in the lives of these children who walked to the center of the city to beg to the tourists for petty handouts.

Dail Community in Nepal has been securing the pledges of the parents who are sending their children to the Hope School to cleanly wash the school uniforms regardless of how difficult their environment is. Moreover, the Hope School holds meetings of the parents every month to explain and share the

status of education of the children and to provide food that is much more than that can be acquired through begging. The Hope School is also promising to be responsible for the children's education to high school if the children wish. We also require the parents to make solemn pledge that they will not force labor on their children to earn money and ensure that their children study at home every day. The Hope School of Dail-KOICA is fulfilling its role as a self-reliance education institution not only for the children but also their parents by teaching the children to become self-sufficient persons without having to beg.

Floating Kindergarten where Hope Grows

Dail Floating Kindergarten on Siem Reap, the biggest lake in Asia, opened in September 2009 is a kindergarten attached to the Chong Khneas Elementary School. The classes are divided into the morning and afternoon classes for approximately 100 students with the age range of 4~6 years. Children who find studying at the kindergarten to be most enjoyable throughout their day are growing as the future hopes of Cambodia through the Dail Floating Kindergarten. Meetings with the parents are held once a month on the last week of the month to show the parents the activities of the kindergarten with presentation of photographs and talk about the activities for the following month. As the photographs of the activities of the children are presented, the mothers concentrate on the photographs with the anticipation of seeing their children in the photographs. It seems that the mothers are the same everywhere in the world. Mothers who made their children to catch fish and beg find it amazing that their children are growing up properly with systematic education. In addition, the children and the mother realized that the gaze of the mothers who are putting on clean school

uniforms rather than the dirty cloth in the past and adorably tying the hairs of their daughter to send the children to the kindergarten can be changed through education, thereby changing the distrust in them into hopes.

Children who want to learn and nurture dreams

Dail Community in the Philippines operates Baffor and Dail Dream Care Center in the Cavite region. In particular, the kindergarten education by the Dail Dream Care Center is being conducted very actively. Prior to the opening of the Dail Dream Care Center, children who were studying in a classroom with tin roof with hole incapable of sheltering the children from the rain and wind are now growing up by nurturing their dreams and hopes in comfortable and cozy environment.

Mothers in Cavite who visited the kindergarten on their foot frequently ask questions and make statements such as the following:

"I want to have my child attend the Dail Kindergarten!"

"Do you accept children who are not Christians?"

"Do you give out meals to those who are not Christians?"

Yes, of course. Whether you are a Christian or believers of other religions is not important. Dail Community in the Philippines welcomes all and any children who wish to learn and nurture dreams.

Residents of the villages around the Center make requests such as "please do not leave from our area and continue to be our guardian angel." Unlike their past filled only with agony and pain, the Dail Community in the Philippines is sharing the thoughts of the children and parents on the dreams and hope for the better future.

For the Dail Hope School

Public education is free in Tanzania. As such, anyone can attend school without any financial burden, but the school attendance rate of children is very low. The majority of the children are not able to afford school uniform, bag, supplies and school contribution fees even though there is no tuition fee being charged, thereby unable to enroll into or dropping out of the school. Dail Hope Class was opened and operated in order for such children to transfer to the regular elementary school courses in Tanzania. The children enrolled in the Hope Class receive support for enrollment in regular school through sisterhood relationship.

The circumstances of the children currently enrolled in regular school programs are not much different. The houses they return from school are extremely small and dark clay huts without electrical supply. As such, they study while lying down on their belly on the bare ground outside. Although such attitude of the children is praiseworthy and admirable, it makes the onlookers to experience extreme

feeling of sadness at the same time. We are ardently making preparations to open the Dail Hope School in Tanzania to provide after school hour classes in which to study joyously and with peace of mind for the children in aforementioned circumstances and the children who are not in school even though they are of school age.

We look forward to your continued interest, concerns and support for the after school hour classes and the Dail Hope School Tanzania, which will commence operation in the near future!

Dail is putting in our utmost efforts in order for the children in the poverty stricken countries in the world to enjoy the rights that are entitled to them as human beings. We seek your helping hand enable our children to receive proper education, be protected from the threats and freed from undue labor forced on them.

Please think about and have concerns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 in order for them to take steps out of their desperation into the world of hope.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세요

“친구들이 부러워요.”

탄자니아 다레살렘 채석장 마을에 살고있는 10살 소녀
어린 나이에 병든 어머니와 살고 있는 레헤마...



레헤마의 마음에 꿈과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성장기 소녀지만 음식이 부족해서 레헤마는 아위어 있습니다.

레헤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어머니가 언니를 낳은 후 출산 후유증으로 청력을 잃고 디스크까지 앓게 되면서 하반신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언니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남의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파출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스스로 많은 일을 해내야 하는 10살 소녀 레헤마에게는 이 외롭고 슬픈 삶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던 레헤마가 탄자니아의 밥퍼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레헤마의 마음속에도 한줄기 빛이 스며들 듯 세상에 대한 믿음과 삶에 대한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헤마와 다레살렘 채석장 마을의 아이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1:1 아동결연 후원자가 되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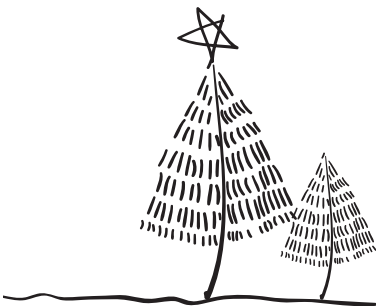
- ▶ 아동소개카드
- ▶ 아동자필편지
- ▶ 아동성장보고서 성탄카드
- ▶ 소식지
- ▶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2212-8004
팩스 02-2243-8005
홈페이지 www.dail.org





이웃과 함께하는 거리 성탄예배



2014년에도 다일공동체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일공동체는 추운 겨울 거리에 모일 수밖에 없는 소외된 이웃들,
 홀로 쓸쓸히 겨울을 날 수밖에 없는 분들과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모두
 가 함께하는 "27번째 거리성탄예배"를 드립니다.
 다일공동체와 이웃이 함께 진지를 나누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복과 겨울 용품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12월 25일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며 참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에 될 것입니다.

거리성탄예배 참여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





D A - I L
COMMUNITY
2014.12.25
T h u r s d a y

이웃과 함께하는
거리성탄예배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번지

함께 하는



우리에게 12월 25일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림 재능기부 일러스트레이터 최효주 | <http://blog.naver.com/charms139.do>



해외 빈곤국가 아동에게 12월 25일은?
외롭고 고된 평범한 날입니다.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아이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해 주세요



1:1 아동결연
문의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02 2212 8004
www.dail.org



사랑+ 캠페인은

한분 후원회원이 새 후원회원 한분을 연결하기!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기존 후원회원께서 신규 후원회원 한 사람을 연결하는 캠페인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한 생명을 더 살리고 양육하는 아름다운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의
02.2212.8004
www.dail.org



나눔이야기

우리시대 나눔의 아이콘

우리시대 나눔의 아이콘 부부, 선 & 정혜영 부부

지난 10년간 매년 10월 8일이면 어김없이 밥퍼를 찾는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대 나눔의 아이콘 부부인 선 & 정혜영 부부입니다. 10월 8일은 이 부부의 결혼 기념 일인데 매일 하루에 1만원씩을 모아 결혼기념일이 되면 1년 동안 모은 365만원을 가지고 밥퍼를 찾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되어 365만원을 은행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1만원씩을 모은다는 것은 정말 정성이 깃든 마음 없이는 힘든 일입니다. 밥상공동체 가족들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한 밥을 대접하기 위한 그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밥상공동체 가족들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올해로 결혼기념 10주년을 맞아 밥퍼를 찾은 이 부부를 본받아 요즘 밥퍼에는 결혼기념일을 맞아 쌀값을 후원하거나 쌀을 보내는 부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매년 결혼기념일을 맞아 이 부부처럼 밥퍼에서 특별한 결혼기념일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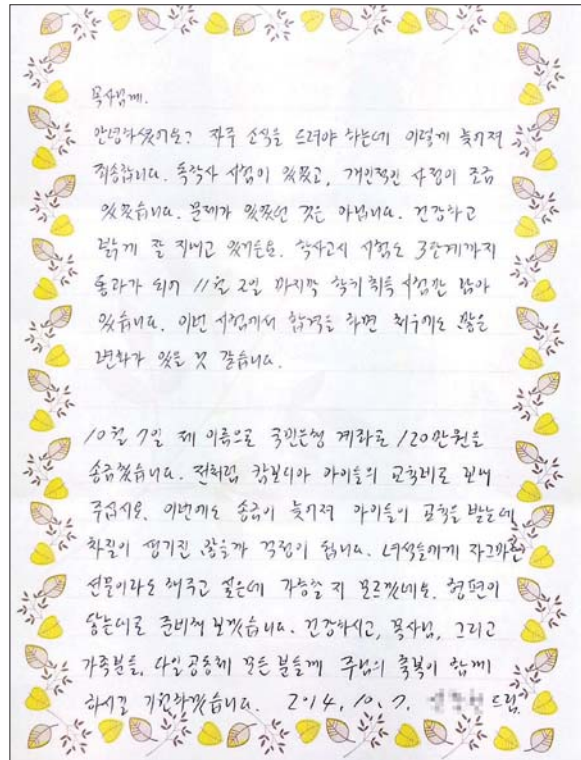




밥신, 정준하 다일홍보대사가 밥퍼에 뒀습니다.

10월 16일 '세계식량의 날'을 기념하여 다일공동체 홍보대사이며 MC겸 영화배우인 정준하씨가 밥퍼봉사를 했습니다. 1945년 10월 16일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WHO)가 창설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식량의 날'에 맞춰 지난 7월 7일 다일공동체 홍보대사로 위촉된 정준하님이 밥퍼를 찾았습니다. 밥퍼 배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배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식신인 제가 이번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배식을 해보겠다."며 밥퍼를 찾은 다른 봉사자들과 맘을 흘렸는데, 어찌나 열심히 봉사를 하던지 보는 모든 분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배식 후에는 모든 자원봉사자들과 일일이 친절하게 사진촬영을 하며 다일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주셨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기 위해 20kg 쌀 10포대를 후원하며 앞으로 주위의 많은 지인들이 이렇게 쌀을 후원하도록 홍보대사로써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밥퍼 봉사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쪼록 정준하 홍보대사처럼 아직도 이 나라에서 밥 굶는 분들을 위해 사랑의 쌀을 나누는 따뜻한 천사들이 계속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누고 싶은 편지



목사님께.

오랫동안 청송교도소에서 보내오는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감동이 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고자 하는 진심이 편지에 담겨있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단한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짬을 내어 독학사를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에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을지 그려집니다. 더욱 감사한 일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그 곳에서 일하며 받는 돈을 캄보디아 아이들의 교육비로 써달라며 한푼한푼 모아 보내오시는데 혹여나 늦게 보내서 아이들의 교육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 하시는 모습에 그분의 진심어린 섬김과 나눔의 삶을 보게 됩니다.

안녕하셨어요? 자주 소식을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늦어져 죄송합니다. 독학사 시험이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밝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학사고시 시험도 3단계까지 통과가 되어 11월 2일 마지막 학위취득 시험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합격을 하면 처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7일 제 이름으로 국민은행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전처럼 캄보디아 아이들의 교육비로 보내 주십시오. 이번에도 송금이 늦어져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녀석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형편이 닿는 대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목사님, 그리고 가족분들, 다일공동체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14.10.7

별 떨어 그 빛을 숨기지 않고

A Christmas Carol Before the Paling of the Stars

시 제공 | 최별(Byeol Ellie Choi)

크리스티나 로세티 / By Christina G. Rossetti

별 떨어 그 빛을 숨기지 않고
새벽 알리는 닭소리
아직 울기 전인 겨울날 새벽
예수 그리스도는 나셨느니라.
그곳은 마구간, 구유는 요람.
자기가 만드신 세상이건만
평범함 사람으로 그는 나셨네.
제사장과 이 세상의 임금님들은
서울 예루살렘에 깊이 잠들고,
사람 웅성거리던 베들레헴 마을도
노인이건 젊은이건 모두 잠들었느니라.
성도와 천사, 황소와 당나귀,
서로 서로 만나는 겨울철 크리스마스 새벽녘에
눈을 뜨셨네.
엄마 품에 잠든 아기 예수의 모습,
마구간은 무척 추웠더라.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그려니
에워싼 양 떼의 목자시라.
처녀 마리아와
허리를 굽힌 머리칼에 서린 어린 요셉의 모습,
성도와 천사, 황소와 나귀 함께
우리도 영광의 주를 찬양하리.

Before the earliest cock crow,
Jesus Christ was born:
Born in a stable,
Cradled in a manger,
In the world His Hands had made
Born a stranger.
Priest and king lay fast asleep
In Jerusalem;
Young and old lay fast asleep
In crowded Bethlehem;
Saint and angel, ox and ass,
Kept a watch together
Before the Christmas daybreak
In the winter weather.
Jesus on his mother's breast
In the stable cold,
Spotless lamb of God was he,
Shepherd of the fold:
Let us kneel with Mary maid,
With Joseph bent and hoary,
With saint and angel, ox and ass,
To hail the King of Glory.

영성수련 감상문

다일공동체 영성생활수련 1, 2, 3단계를 통한 나의 변화
/ 157기 반석 (황혜진)

10년 전 나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폭언으로 물든 시간들을 절에 다니며 나의 업으로 나의 잘못으로 이런 현실이 왔다는 논리 앞에 엎드려 절하며 염불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오로지 남편만이 나의 전부였던 나의 삶에 남편의 배신은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고 이일로 남편이 우리 가정을 떠날 것 같은 두려움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 3년을 매일같이 절하며 주말에는 어김없이 깊은 암자를 찾아 3천배를 했고 내 죄로 인한 현실이라기에 내 죄를 씻고 싶었다. 하지만 기도를 하고 절을 할수록 나의 기도와 몇 천 번의 절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죽든지 출가를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던 중 내 죄를 대속하기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며 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예수님을 통해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며 나의 모든 고통과

시련은 축복의 통로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날이 6년 전 오늘이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집에 있던 모든 불교서적과 염주와 탕화 등 모든 불교와 관계되는 것들을 모조리 버리고 새벽기도와 수요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통해 눈물로 회개하며 은혜를 받아 어려운 환경이지만 두 아들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나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큰 아이가 대학교를 가면서부터 우리 집은 가정 지옥이 되었다. 고등부 부회장까지 했던 아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늦은 시간에 귀가 할 때면 아들을 정죄하기 시작했고, 아들의 모습에서 남편의 모습을 떠올라 남편을 닮아갈 것 같은 두려움에 아이를 미워하며 정죄했다. 우리 가정은 그렇게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이런 내가 이해되지 않아 스스로 기도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왜 이럴까요? 왜 사랑이 없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도 아이의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 아버지 도와주세요.
왜 이럴까요?
왜 사랑이 없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주여 도와주세요. ”



그 와중에 난 최일도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일공동체 영성생활수련에 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하며 실천해온 목사님을 알게 되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실천이 너무나 존경스러웠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론적인 설교가 아닌, 체험을 통한 설교말씀들이 내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다.

난 1단계 '아름다운세상찾기'라는 제목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에 반석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반석이라는 별칭과 함께 영성수련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속에서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앙금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남편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다.

“아, 이것이었군요. 아버지.”

“나의 속사람은 아직도 상처를 안고 울고 있었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생각과 느낌의 틈새를 갈라 모든 일에는 화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 생각과 내 느낌으로 모든 화를 만든 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가 터지고 내 잘못이었음을 온

전히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 나는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남편에게 진정한 용서를 했다고 문자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지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내 생각으로 아이들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단계 마지막 날 성경공부 시간에 영성수련의 의미를 다 풀어줄 때, 나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가정을 지켜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었다. 일주일 뒤 나는 '작은예수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2단계 영성수련에 임하게 되었다. 2단계는 크리스천들만 참여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질문과 함께 시작되었다. 난 가장 낮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들과 과부와 죄인들의 친구로 살다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배울 수 있었다. 1단계에서처럼 수련 중에 들려주는 찬송가와 복음성가, 폐제공동체의 음악들은 수련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항상 부르짖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만을 반복했던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가족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다. 2단계를 통하여 예수중심적인 삶을 갈망하게 되었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뒤, 3단계 영성수련인 '하나





님과 동행하기에 참석했다. 3단계는 온전히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서만 붙들고 기도만하는 전통적이고 본격적인 기독교 영성수련이었다. 성경묵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도방법을 배우고 묵상한 부분을 기록하고 매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수련이었다.

순복음교회를 다니며 큰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에 익숙했던 나에게 침묵으로 드리는 성경묵상기도는 많이 낯설었다. 셋째 날이었다. 묵상이 잘되지 않아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아 “아버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하며 투정부리고 있는 나에게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문득 깨달음이 왔다. 이것이다. 꽃도 나무도 풀잎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눈앞에 보이는 풀은 시들어 죽어도 비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새들도 구름도 바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그런데

나는 투정을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데 난 무엇이었나?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을 이렇게 내 뺨을 스치는 바람처럼 나를 만지실텐데 그 동안 내 조바심과 욕심으로 기도하며 묵상했다는 것을 깊이 회개한 후 묵상 중에 나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며 안아주시는 예수님 품에 안겨 참 평안을 얻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이 어떠한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이들과 죽을 때까지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에도 응답하실 분임을 알지만 과연 그런 날 보시며 기뻐하실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처럼 섬기며 나누며 실천하며 사랑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남은 삶은 하나님의 도구로 살고자하는 비전을 주셨다.

1단계를 통해 나는 아름다운세상을 찾았고 2, 3단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1, 2, 3단계 실천의 장인 진지도우미를 통해 노동과 기도와 섬김을 배울 수 있었다. 나에게 정죄 당하던 큰아도 다일공동체 영성수련회의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를 통하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를 만나겠다는 용기까지 내게 되었다. 가정 지옥이 가정 천국이 되어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가 아니겠는가~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설곡산으로 인도하시고, 다일공동체 영성수련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 앞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이야기

네팔다일공동체 최홍 네팔다일공동체 원장

첫 번째, 기적

지난여름 한 엄마가 불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 네팔다일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센터 앞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하여 살펴보니 아이의 상태가 위급하여 신속히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에서조차 상태가 심각하여 치료가 어렵다는 소견만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올해 4세로 네팔 다일공동체 비전센터가 있는 머느하르 강변의 인도 이주민 마을에 살고 있는 서퍼나 쉐우더리입니다. 병원에서조차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치료를 계속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서퍼나는 곧바로 어린이 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때부터 오랜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뇌수막염과 폐렴이란 진단을 받았지만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병원에 온 시기가 너무 늦어 회복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원회원님들의 중보기도와 도움으로 서퍼나는 병마와의 힘든 싸움을 견뎌내며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네팔 다일공동체 비전센터에는 건강을 되찾고 환한 미소로 감사예배를 드리는 서퍼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후원회원님들의 기도도와 도움 덕분입니다. 사랑의 나눔과 섬김 있는 곳에 죽은 아이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네팔 빈민촌 아이들에게 사막에 강이 만들어 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계속되도록 사랑의 나눔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변화

중학교를 마치고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진수는 어느 날 부모님에게 더 이상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수의 부모님은 고심 끝에 아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대신 먼저 봉사활동을 해볼 것을 제안하였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9월 1일부터 3개월간의 봉사활동을 위해 네팔 다일공동체에 오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의 하루는 아침 예배와 이른 아침 센터에 찾아오는 빈민촌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청소, 체육활동, 네팔어교육,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예배로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센터의 일정을 소화해 나가던 진수는 봉사활동 기간의 절반이 지날 무렵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꿈이 없던 진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고, 40여일의 봉사활동을 하며 느끼고 깨달은 것들이 중학교 3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다고 고백하며 네팔 다일공동체에서의 봉사활동을 연장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빈민촌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친구가 되어주고, 힘들고 고된 삶의 무게를 작디 작은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진수.

진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환경에서 저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친구들인데 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제가 더 행복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제가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로 제가 힐링되는 것 같아요.”

빈민촌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를 통해 진수는 조금씩 변화되며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화와 도약을 원하시나요? 네팔 다일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웃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시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베트남다일공동체 이종현 베트남 다일공동체 원장

우리은행 우수사원이 최고야!

우리은행 우수사원 해외연수팀 50명이 2개 팀으로 나누어 4월에 이어 이번에도 베트남 다일공동체 밥퍼센터에 오셔서 봉사도 해주시고 식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쌀과 라면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은행 우수사원들이 해외연수 일정 중에 가장 먼저 가난하고 소외 받는 이웃과 함께 하니 과연 우수사원 답습니다. 우리은행 우수사원이 최고야!

포스코ICT에서 동화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포스코ICT는 한인 기업중에 첫 번째로 베트남 다일공동체를 위해 정기후원과 봉사를 해주시는 기업인데 이번에 베트남어로 번역된 한국 동화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밥퍼에 오는 베트남의 어린이들을 위해 한국 동화책을 베트남어로 제작하여 선물함으로써 아이들이 동화를 읽고 한국의 문화를 배우며 자라날 아이들을 생각하니 흐뭇합니다. 육의 양식뿐 아니라 마음의 양식을 얻은 아이들의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미래도 환하고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포스코ICT가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간다다일공동체 김혜경 우간다 다일공동체 원장

NGO등록으로 첫 걸음마를 떼며

지난 7월 30일 우간다 다일공동체 개원 감사예배로 우간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다일공동체는 우간다 땅에서 사역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국제NGO 등록을 우간다 정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사무실을 검하여 사용할 선교관을 구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사하게도 미주 다일공동체 후원회원님들의 사랑의 손길로 선교활동에 사용될 차량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선교지를 개척하는 일이라 때때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였지만 그 때마다 적절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NGO 등록이 서류를 접수한지 한 달 만에 승인되는 기적 같은 선물도 허락하셨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등록 승인을 받지 못한 선교사님들도 주변에 계신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 같은 땅에서 하나씩 채워져 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간다 다일공동체의 설립을 주님께서 무척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첫 걸음마를 떤 시작이기에 해야 할 일들과 넘어야 할 관문들이 참 많습니다. 우간다 다일공동체의 사역지를 찾는 일, 함께 사역해나갈 현지인 동역자를 구하는 일, 다일공동체의 정신에 따라 교회를 개척하는 일, 현지 언어를 습득하는 일 등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간다의 어린 영혼들에게 밥과 복음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어린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국다일공동체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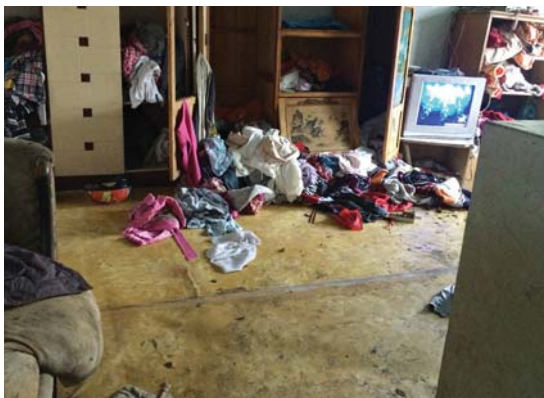
새 가족을 기다리며

훈춘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현지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방문했더니 정신지체를 가지고 계신 어머니와 세 아이(10살, 8살, 5살)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10살, 8살 아이는 학교에도 가지 않고 있고 10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부터 다녀야하는 상황이고 막내는 아직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 호적조차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소변 실수를 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세 아이의 어머니에게 살림살이와 아이들의 양육은 너무나 버거워 보여 마음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호적이 훈춘이 아닌 흑룡강성으로 되어있어 중국의 1가정 1자녀 정책에도 어긋나 있을뿐만 아니라 부모의 혼인신고와 막내의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절차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부디 모든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되어 어머니와 세 아이들 이 중국 다일공동체의 새 가족이 되어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의 결혼

중국 다일어린이집에서 자라 현재 북경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미나가 내년 1월에 결혼을 합니다. 수줍음 많고 동생들을 살뜰히 살피던 미나가 어느덧 26살이 된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국경절을 맞이하여 신라의 고향에서 혼인신고도하고 여러가지 수속을 하러 왔다가 미나가 자란 훈춘에 들러 동생들을 만나고 후원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미나 뿐 아니라 다일어린이집에서 성장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중고 노트북을 후원받습니다.

현재 다일어린이집에는 6명의 고등학생과 4명의 대학생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학업 상 노트북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지만 노트북을 사주기에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혹시 사용하시지는 않지만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는 노트북이 있으시다면 한국의 다일복지재단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히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이정식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캄보디아 프놈펜 다일공동체의 특별한 자원봉사자들
 캄보디아 프놈펜 다일공동체에는 특별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프놈펜 밥퍼에서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는 빈민촌 아이들 중 몇 명이 그들입니다. 프놈펜 밥퍼의 시작과 함께 아이들의 손길은 분주해집니다. 야채 다듬기, 식판 옮기기, 식탁/의자 준비하기, 배식 돕기, 갓난아이들의 식사도우미, 400여개의 식판 설거지하기, 아이들이 힌슬고 간 센터 마당 정리하기까지 특별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잠시 쉴틈도 없습니다. “프놈펜 밥퍼에 이 아이들이 없다면, 프놈펜 밥퍼는 마비될 겁니다.”라는 담당 간사님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섬김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밥퍼 시작부터 마침까지 함께 하는 프놈펜의 특별한 자원봉사자들... 이 아이들이 받는 섬김의 몫은 ‘가족들의 저녁 식사 한 끼’입니다. 가족들의 저녁 식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땀방울을 프놈펜 밥퍼에서 쏟는 특별한 자원봉사자들. 양손에 비닐봉지 한가득, 냄비 한가득 가족들의 저녁식사를 챙겨 집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와 발걸음은 프놈펜 빈민촌이 전하는 또 다른 아픈 풍경이자, 소리 없는 눈물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의 꿈, 미래의 희망입니다. 가족들의 저녁 한 끼를 위해 몇 시간의 땀방울을 기꺼

이 흘릴 줄 아는 프놈펜의 특별한 자원봉사자들이 캄보디아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가난한 자,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땀방울을 기쁨으로 쏟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보다 더 낮은 자, 더 아픈 자의 저녁 식사 한 끼를 위해 기꺼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천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여러분의 아들과 딸로 결연해 주시길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기적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원회원 여러분이 전하는 작은 기적을 기도함으로 기다립니다.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변창재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천사 부부의 하루

지난 9월 6일 결혼 후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밥퍼를 찾은 귀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경호, 설비 부부입니다. 이경호 형제님은 탄자니아 코리아 게스트하우스의 이태조, 이해명 사장님의 아들로 탄자니아 교민으로는 최초로 탄자니아에서 태어난 한인 2세입니다. 결혼 생활의 첫 발걸음을 나눔과 섬김의 현장,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의 봉사로 내딛고 싶다는 요청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탄자니아 아이들을 위해 일일 배식비까지 후원해 주셔서 이날 하루 쿤두치 채식장 아이들은 배부르고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혼부부의 귀한 발걸음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축하하고 기도해 주실까요?

웃음소리 가득한 다일호프클래스

선긋기 연습부터 시작한 호프클래스 아이들이 이제는 숫자를 쓰고 읽으며 알파벳을 배우고 있습니다. 선도 제대로 그리지 못하던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한 것도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술과 음악, 체육도 가르쳤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마땅한 선생님이 없어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술은 김예린 학생이, 체육은 마잘리와 형제님이 태권도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김예린 학생은 김정태 선교사님의 자녀로 밥퍼에

서 봉사하며 박상원 홍보대사님과 함께 밥퍼센터 벽화와 얼마 전 완성된 세계지도 작업에도 자원봉사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침 다니는 학교가 밥퍼센터에서 멀지 않다며 매주 금요일 봉사 시간에 호프클래스 아이들과 미술 수업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첫 수업은 아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그려 주는 시간이었는데 친구의 얼굴을 그리는 아이들이 너무나 즐겁고 신나보여 미술시간 내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해준 예린 자매의 예쁜 마음이 얼굴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태권도를 가르치는 마잘리와 형제님은 박상현 선교사님의 제자인데 선뜻 태권도 교육을 맡아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태권도 수업이 있는 첫날, 태권도 복을 받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얼굴이 참 해맑습니다. 신발 정돈과 인사부터 가르치는 것을 보며 태권도를 통해 아이들이 예절과 존중, 바른 자세, 바른태도를 함께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느낌이 참 좋습니다.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다섯...열”까지 배워서 말하는데 얼마나 잘 따라 하는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큰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웃음소리 가득한 다일호프클래스가 있어 참 감사합니다. 김예린 자매님, 마잘리와 형제님이 최고야!



필리핀다일공동체 이명현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한 밥퍼

필리핀 다일공동체 후원이사이신 이성일 장로님께서 섹스폰 앙상블 팀과 함께 오셔서 밥퍼 봉사와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유치원 꼬마들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다 말고 아래층 밥퍼 센터에서 들리는 낮은 소리에 귀를 쫓긋 세우며 “선생님! 이렇게 예쁜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며 장로님들의 연주하는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주먹으로 나팔 부는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연주소리가 퍼지자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모여 신기한듯 연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즐거워 했습니다.

또한 이성일 후원이사님께서는 열악한 필리핀 다일공동체를 위해 지인분들(류진웅님, 김경숙님, 신순자님, 류영수님, 서봉석 장로님)과 함께 후원금을 모아 전달해주기도 하셨습니다. 후원이사로, 밥퍼 봉사자로, 멋진 연주자로, 필리핀 다일공동체를 섬겨주시는 이성일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가운 손님

필리핀 다일공동체가 위치한 곳은 오지입니다. 깊은 산속에 있냐고요? 아니요, 꼭 깊은 산골에 있어야만 오지인가요? 관심이 적고 발길이 뜸한 곳이 오지이지요. 이런 오지인 필리핀 다일공동체에 참으로 반가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서울다일교회 집사님이신 최영미 원장님과



다일의 오랜 자원봉사자요 영성벗님이신 오정순님, 다일 천사병원 김현자 실장님, 다일작은천국 안금영 과장님 등 세 분의 간호사분들이 합류하여 오지 필리핀 다일공동체에 의료봉사를 오신 겁니다. 주말에 이루어진 짧은 봉사였지만 얼마나 알찬 봉사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으며 환자들을 치료해주었던지 최영미 원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져서 부라부라 초콜릿으로 급히 에너지를 보충을 해야 했고, 간호사분들도 근육통 약까지 먹어가며 봉사 할 정도였습니다. 환자들 치료해주다가 하마터면 다들 환자가 될 뻔 했습니다.

명품가방들고 유유자적 다니실 분들이건만 이렇게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참으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다일천사병원작은천국 **장갑순** 다일작은 천국 과장

당신이 천사입니다!

2014년 천사의 날은 진정한 천사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3년 전, 2011년 9월 30일 다일작은천국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모녀로부터 편지 한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녀처럼 절박한 처지의 가난한 이웃에게 수술비로 써주세요!” 라고 적힌 봉투안에는 천만원 수표 두 장과 함께 편지 한통이 들어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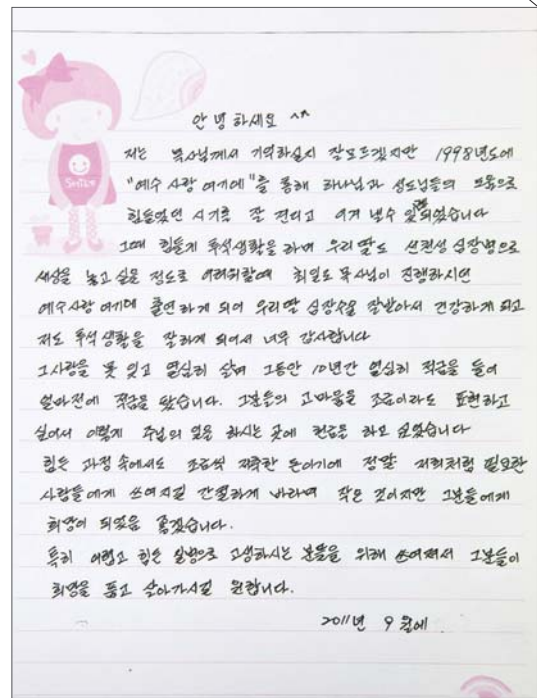
순식간에 봉투만 주시고 급하게 가버리시는 바람에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편지에는 도움을 받아 건강을 회복하게 된 사연과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3년도 살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어린 딸과 신장투석을 하고 있는 어머니가 수술비와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16년 전 최일도 목사님이 진행하던 기독교 TV 생방송 프로그램인 “예수사랑 여기에”에 출연하여 딸은 수술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투석을 잘 받게 되어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렇게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건강해진 어머니와 딸은 완치가 된 이후 감사한 마음을 하루도 잊지 않았고, 십년간 그 정성을 모으고 모아서 3년 전 다일작은천국에 기부하게 된 것입니다.

16년 전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오신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근검절약해서 10년 동안 모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하신 모습은 큰 감동입니다. 20여년간의 신장투석과 생활보호대상자로 어렵게 살아가는 힘겨운 살림이지만 10년간 적금을 들고 근검절약하고 아끼고 모아서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해 달라고 기부한 두 모녀의 2천만원은 재벌이 기부하는 20억이나 200억보다도 더욱 값지고 귀한 것이기에 두 모녀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천사입니다!

“ 우리 모녀처럼 절박한 처지의 가난한 이웃에게 수술비로 써주세요! ”



01



서울봉은초등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아주 어린 티가 짝짝 느껴지는 서울 봉은초등학교 학생들이
 입니다. 이들도 능름하게 경찰소년단. 아이들은 어른들
 을 위해 작은 손을 오물조물하며 봉사하였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2



한국지멘스
 국제적 일류 기업인 지멘스 한국지사에서 귀한 나눔과 섬
 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도 일류, 몸 쓰는 것도 일류입
 니다. 오래 전 밥퍼에서 봉사하고 가셨다가 너무나 감동
 하여 다시 찾아주신 한국 지멘스 '더 나눔봉사단' 여러분
 이 최고입니다.

나는 행복한

03



서울 그린로타리클럽
 밝은 미소로 언제나 밥퍼를 찾아주시는 그린로타리클럽
 회원들입니다. 오실 때마다 귀한 나눔을 함께 해주시니 감
 사드립니다. 밥퍼에서 많이 봉사하셨더니, 썬기 솜씨가 보
 통이 아닙니다. 밥퍼와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든든합니다.

04



글로벌에스테틱리더협의회
 이들이 다녀간 뒤에 밥퍼에서 왠지 향기가 묻어나옵니다.
 에스테틱리더 회원분들이 오셔서 밥상공동체 어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어른들이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그
 모습이 생생히 생각합니다. 자주 찾아와주세요!

05



수도권산악회

매달 밥퍼에서 정기봉사하시는 수도권산악회 회원분들입니다. 다들 등산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체력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오리지 않고 작은 손길, 동전들을 모아 주시니 그 정성에 감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06



외교부

밥퍼의 든든한 가족, 외교부 임직원들입니다. 몸과 마음에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푹푹 뭉친 그들이 있어서 밥퍼 스태프들이 조금은 편했답니다. 온 세상이 이와 같은 마음이면 밥 굶는 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외교부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원봉사자

07



영란여자중학교

세상 누구보다 예쁘고 착한 영란여자중학교 학생들입니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어르신들을 섬겨주시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면서 춤까지 춰드려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밝고 명랑한 아이들이라 봉사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08



동대문세무서

역시 밥퍼의 든든한 지원군이죠. 언제나 환한 미소로 답해 주시니 밥맛이 참 좋습니다. 이분들이 지나간 주방이 깨끗하고 광나는 걸 보니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매일 찾아와 주셨으면 하는데...어렵겠죠? 세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후원 감사

신규후원회원 8.21~10.21

(주)더이한플러스, (주)세한아카데미외국어학원, 0222146876, 8/30김영희, FnA 인터내셔널(주), sc 제일은행직원, SIEMENSLT, 강명분(저금통), 강수정, 강정숙, 강정열, 강형창, 게리(에스테틱협회), 경은주, 고은혜, 공국희, 구이선, 권진영, 기드온, 김경애, 김광태, 김남희, 김덕진, 김동근, 김동현, 김명숙, 김미림(콘드레집), 김미자, 김미진, 김병국, 김보연, 김부일, 김상원, 김상하, 김성준, 김성혜, 김소연, 김소희, 김송순, 김숙현, 김숙희, 김여진, 김연상, 김연희, 김영미(유승영), 김영희, 김옥숙, 김용, 김용규, 김은숙, 김은옥, 김은주, 김은하, 김인순 복호룻, 김재희, 김점주, 김정미, 김정아, 김정아, 김정훈, 김정희, 김지영, 김진영, 김창수, 김태호, 김학진, 김해준, 김현우, 김형빈, 김형준, 김혜숙, 김혜정, 김흥기, 김희경, 김희영, 나눔대축제, 나서중, 노은혜, 노정현, 노혜원, 녹색기술센터, 다윗(김태하), 류건, 류해연(최진근), 류호열, 모금함2개수합분, 모현실, 문수광, 민혁기, 바자회, 박명재, 박미순, 박민엽, 박민정, 박상미, 박영연, 박영옥, 박완규, 박우엽, 박종희, 박주영, 박주영(문성중), 박주희, 박주희(난곡중), 박준서, 박지희, 박진숙, 박진용, 박채빈, 박채원, 박하람, 박홍식, 방은경, 배기동(니콜라오), 배선화, 배자인, 배지석, 오엘, 백경희, 변선경, 사)한국컨시어지협회일동, 사단법인한국컨시어지협회, 서광아이앤디, 서대현, 서미경, 서예은, 서요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청FC연합회, 서울하나회, 서원자, 서의현, 서정선, 서지연, 서지현, 서퍼나, 서현의, 선한민, 성연순, 성현, 소경옥, 소망교회정정자, 손귀자, 손신영, 송미선, 신서현, 신석철, 신정선, 신정주, 신주애, 신준민, 신준호, 아른, 안지현, 안현덕, 양문영, 양정실, 얼음냉수반식, 영육생명구원, 예찬예원, 예향회, 오경미, 오경희, 오병이어임문취장로님, 오상은, 오성애, 오형용, 오혜진, 왕주연, 우리은행미아동, 우리은행방학동지점, 운산고등학교, 유명숙, 유미자, 유석원, 유연희, 유영남, 유영아, 유유자, 유지인, 유현주(저금통), 윤선희, 윤순애, 윤옥분, 윤재현, 윤희연, 윤희정(박승철헤어원주이마), 윤희준, 이가경, 이가현, 이강윤, 이건중, 이경자, 이기쁨, 이다경, 이덕근, 이미옥, 이서빈, 이성례, 이성화, 이세연, 이세훈, 이수진, 이순기, 이승욱, 이승재, 이연화, 이영옥, 이영원, 이영주, 이영진, 이용범, 이유연, 이은미, 이일숙, 이재만, 이정숙, 이종옥, 이지연, 이지윤, 이진선, 이진아, 이진주, 이진호, 이초롱, 이혜원, 이향림, 이현아, 이형섭, 이혜림, 익명, 임미경, 임승찬(임주한), 임재선, 장예은, 장일경, 재단법인동부문화재단, 전영진(저금통), 전주성김정현, 정다빈, 정도실, 정미경, 정성희, 정영애, 정운경(저금통), 정지선, 정진욱, 정해경, 정현욱, 정효진 데레사, 정희선, 제시치료, 조동균, 조동기, 조명동, 조미경(저금통), 조미순, 조성근, 조연순, 조은주, 조철민, 조현숙, 차미란, 천사병원, 천일태, 최고야, 최기훈, 최덕진, 최면정, 최문정, 최아름, 최영준(셀파), 최예은(홍은정), 최장선, 최현우, 추선희, 크린위드(이상환), 크린토피아, 피월매, 하민하진, 하정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규환, 한정수, 한주완, 해망동교회 청년회, 흥재완, 화상소년제시지원, 황경자, 황경자(저금통), 황규순, 황금숙, 황소영, 황수현

밥퍼나눔운동본부 후원물품 8.21~10.20

kingdom of god 연두부400개, 무20개, 강민수 고추 4box, 강민수·김초아 사과 20kg, 구례집 고사리 33kg, 군위상회 삶은도라지 350kg, 김수옥 김 3box, 김진호 쌀 200kg, 동대문세무서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드림재단 빵 6400개, 명일중학교 머핀 780개, 쌀 10kg, 무명 쌀 140kg, 보성상사 쌀 120kg, 사조·해표 참기름, 고추가루, 고추장, 팝콘, 햄, 서울우유 우유 4032개, 신제윤 쌀 60kg, 신현고등학교 쌀 45kg, 엄용섭부부 쌀 100kg, 열린문교회 숙주나물 50봉, 운산고등학교 쌀 5kg, 전통경기복떡송편 80kg, 처갓집 생닭 60마리, 태진인터내셔널 쌀 64kg,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쌀 20kg, 한일이화 쌀 1000kg

Thanks to

	후원금 강천만, 국군중앙교회, 씨제이프레시웨이, 이병화, 이주천
다일천사병원&작은천국 후원회원 및 후원물품 8.21~10.24	후원물품 김양국님 식료품(고추가루, 고구마 등), 한스넷물류 박진호님(쌀 10kg), 동대문소방서 송편 및 입소자 내의 등, 텡굴텡굴도서관 책 400권
캄보디아다일공동체 후원회원 8.21-10.16	경성대학교학군단, 고세인, 구리창일교회, 구리창일교회, 김강우선교사, 김경애, 조슬기, 김경자, 김대하, 김유진, 김새롬, 김학용, 대박, 동송교회 윤회정, 무명, 민영수, 강형내, 배영실, 성낙주, 신수영, 아주그룹, 안경만들기, 양광감리교회, 양광감리교회, 옥토감리교회청년, 윤기철목사님팀(말씀골교회), 이금춘선교사, 이남영, 이원준, 이윤서, 이호성, 인제대학교학군단, 임응택(늘푸른초록봉주유소), 정다운, 주보라교회(장년부,청년부,중고등부), 최수린, 최지원, 카도, 프놈펜제일감리교회, 하나투어광주지사, 선진이, 한길교회 정희락목사님, 한미현, 최하진, 한성희, 한연
중국다일공동체 후원회원 8.21~10.20	고미나(북경), 권윤경, 김광호, 김성재(Obey & Praise), 무지개 애심협회, 양자선교회(대표 허에스더), 이동경, 한용수, 훈춘시 흥십자
탄자니아다일공동체 후원회원 8.21~10.20	윤예주, 이경호, 이설비, 이해명(코리아 하우스), 탄자니아한인교회
베트남다일공동체 후원회원 8.21~10.20	후원회원 A PLUS, LOSCO, MAX VINA, NAHAL, POS-SEA, THANH CONG, VEGAS, 기업은행, 노현경,닥터 카, 대우 인터내셔널, 롯데리아, 마중물 예람교회,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아리랑화학, 오태근, 윈윈투어, 이형식,최순열, 포스코SOUTH ASIA, 포스코베트남, 호치민중앙교회 모금함 K마트, SKY마트, 국민은행, 대궐 떡 카페, 대장금, 예가, 참마트, 최고집
필리핀다일공동체 후원회원 8.21~10.20	김경숙, 류영수, 교회 류진웅, 서봉석, 신순자, 오정순, 이명현, 해피드림
네팔다일공동체 후원회원 8.21~10.20	글라라, 김혜경, 무나, 무명, 박종원, 부번팀시나, 서울동노회세계선교부, 서퍼나, 선한민, 수력발전 홍석빈법인장의외 3명, 순천은성교회, 이명현, 임훈식, 최희철, 코이카단원

후원안내

문의 | TEL. 02-2212-8004 FAX. 02-2243-8005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을 비롯하여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해외 아동과 결연을 하시면 결연 아동의 소개서와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밥퍼 365(월 36,500원)	365일 밥퍼와 함께하는 마음을 담은 국내외 무료 급식을 위한 후원입니다.	
전세계 밥퍼 1일 배식비(700만원)	노숙인 및 무의탁 어르신들께 하루 진지를 대접하는 후원입니다.	
다일천사후원	다일 공동체의 의료지원사업(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해외 보건의료사업, BCP 등)을 위한 후원입니다. 1구좌 100만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분원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	국민은행 010901-04-037581
	설곡산다일공동체	국민은행 010901-04-064419
	다일천사병원	국민은행 010-01-0975-871
	다일작은천국	국민은행 467701-01-224504
	다일평화의 마을	국민은행 010-01-0619-487
	캄보디아씨엠립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65
	캄보디아프놈펜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78
	베트남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94
	필리핀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81
	중국 다일공동체	기업은행 017-033086-01-021
	네팔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5744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3964
	우간다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1436
	미주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053115
미주지역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계좌번호 : 334001270347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한국에서 송금할 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미국에서 송금할 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다일복지재단 후원방법 안내	1. CMS(자동이체)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 주시면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 및 다양한 방법으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내 · 해외분원연락처

다일복지재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2-8004

밥퍼나눔운동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8
Tel. 02-2214-0365

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3-8004

설곡산다일공동체

경기 가평군 설악면 봉미산안길 330
Tel. 031-585-2004

다일평화의 마을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Tel. 031-568-5004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St. N°63 Toul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Tel. 070-8220-3940

프놈펜 지부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 Penh City, CAMBODIA
Tel. 855-12-80-8861

중국 다일공동체

433, Hunchun Xijie, Hunchun Shi, Jilin Sheng, China
Dail Children's House
Tel. 070-7792-5451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Post Box #25655, Kathmandu, NEPAL
Tel. 070-8201-5833

포카라 지부

Sahara Bal Promary School, Pokhara 9 Shivatole, NEPAL
Tel. +977-98511-62280

우간다 다일공동체

Tel. 070-8271-1955

필리핀 다일공동체

BLK 8 Lot 3 Calliandra St. 1 Greenwoods, Paliparan #1
Dasmariñas, Cavite 4114, PHILIPPINES
Tel. 070-8220-327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Plot No.2 Block D. Low Density Msasani Village, Dar es
Salaam, TANZANIA
Tel. 070-4099-8686

베트남 다일공동체

D19-07, New Saigon Building, Nguyen Huu, Tho St. Nha
Be, Hcmc, VIETNAM
Tel. 070-8220-6160

미주 다일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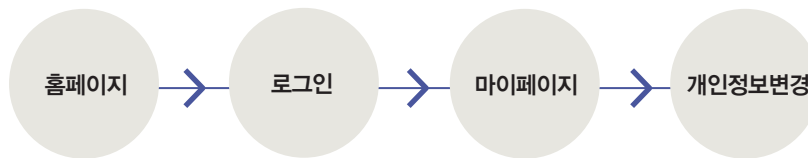
2986 Buford Highway, Duluth, GA 30096
Tel. 1-770-813-0899

기부금 영수증

2014년에도 다일공동체와 함께해 주신 후원가족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되는 회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주세요.
- >> 기부금 영수증이 올바른 주소지로 발급되도록 주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일공동체 홈페이지(www.dail.org)에서 바로 수정 가능합니다.

회원가입하신 후 후원하신 내역 확인이 되지 않으실 경우 다일복지재단 후원관리실 02-2212-8004로 연락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다일복지재단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 다일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www.dail.org



- >> 우편수령하기
2015년 1월 중순 경,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의 후원금액 합산기준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납입금액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는 12월 17일까지 납부해주셔야 2014년 기부금영수증 금액에 합산됩니다.
지로로 납부하시는 경우는 12월 24일까지 납부해주셔야 2014년 기부금영수증 금액에 합산됩니다.

다일공동체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후원내역

<input type="checkbox"/> 만원의 행복(월 1만원) _____구좌	<input type="checkbox"/> 1:1 해외아동결연(월 3만원) _____아동
<input type="checkbox"/> 밥퍼 365(월 36,500원) _____구좌	<input type="checkbox"/> 전세계 밥퍼 1일 배식비(700만원)
<input type="checkbox"/> 다일천사후원(1구좌 100만원) _____구좌	<input type="checkbox"/> 유산 10% 기부회원
<input type="checkbox"/> 다일평생천사후원(1구좌 1,004만원) _____구좌	<input type="checkbox"/> 다일아너스클럽회원(1구좌 1억원)

후원회원 정보

이름 _____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 여)

연락처 _____

이메일 _____ SMS수신동의

주소 _____

우편물 발송 우편물 미발송

CMS 자동이체 동의서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 희망일 5일 15일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기부금 영수증

주민등록번호 _____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시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동의됩니다.

CMS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 후원금은 소득세 법 34조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 등록 및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붙잡아서서 접어주세요

붙잡아서서 접어주세요

붙잡아서서 접어주세요



보내시는 분

□□□-□□□□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복지재단 6층
 후원안내 | 02.2212.8004 팩스 | 02.2243.8005
 홈페이지 | www.dail.org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160기 11월 24일~28일(4박 5일)

161기 12월 15일~19일(4박 5일)



최일도 목사
서울다일교회 담임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 교수



“내 인생에서 못해본 여행이 딱 두가지 있다. 신혼여행과 우주여행.
신혼여행이 얼마나 멋진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다일공동체에서 경험한
영적우주여행,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는 여태까지 내가 한 여행중에서
가장 멋지고 황홀한 여행이었다”
-한비아(전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전화 031.585.2004, 010.8242.5742, 010.7756.8004
홈페이지 www.dail.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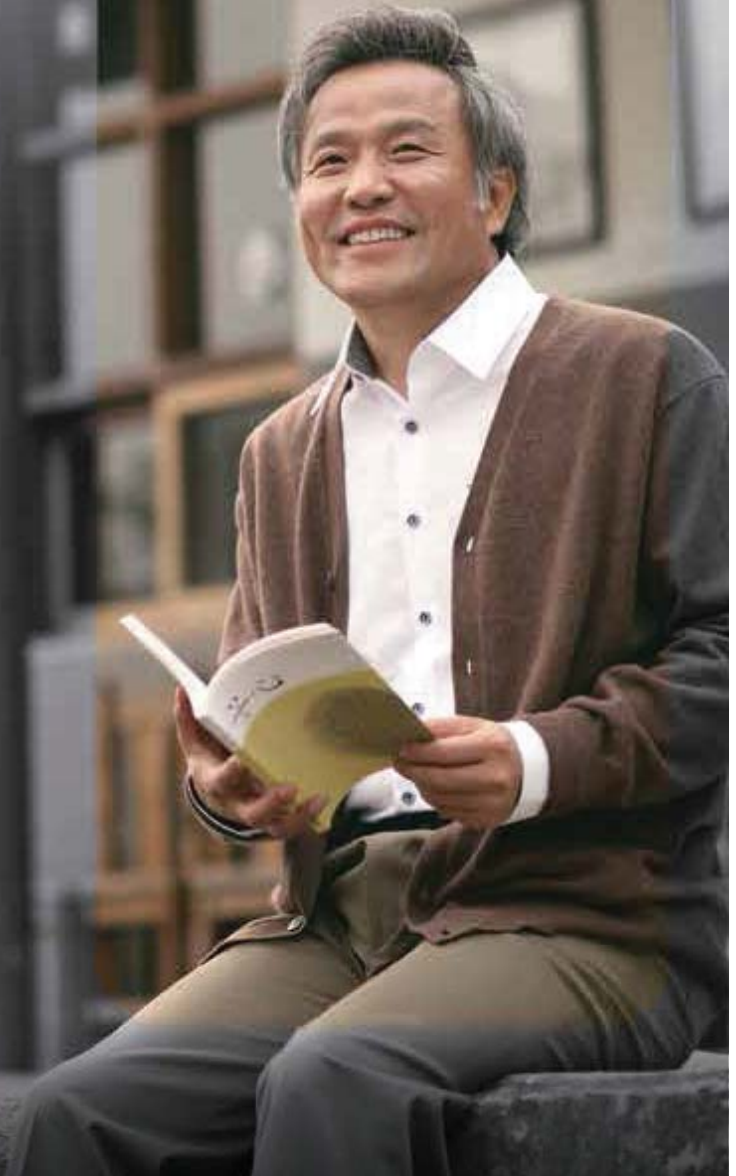
입금계좌
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 다일공동체

밥퍼목사 최일도의 신간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편지를 쓰고
2,555통의 고백을
뜻과 정성 다해 부쳐
독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감동 휴먼 스토리



11월부터 전국 유명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